

碩士學位論文

濟州道 中學生의 民主市民態度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尹 那 連

2008年 8月

濟州道 中學生의 民主市民態度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恒 元

尹 那 連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8月

尹那連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8年 8月

[국문초록]

제주도 중학생의 민주시민태도에 관한 연구

윤 나 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향 원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중학생들의 민주시민태도를 조사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도 중학생의 민주시민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도 내의 중학교의 20개 학급에서 727명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별, 학업성적별, 거주 지역별, 보호자 학력별의 5가지 변인과 민주시민자질의 여러 가지 덕목 중 인간존중, 준법성, 자율성, 합리성, 참여, 개방성의 6가지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 인격존중과 타인의 인격적 대우, 인권에 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인간 존중태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준법성에 관하여 규칙준수, 공중도덕, 질서의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자율성에 관해서는 책임의식과 솔선수범, 책임완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본 결과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이 학생들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해 비교적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넷째, 합리성에 대해서는 합리적 소비, 대화와 토론,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수결원리를 제외하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섯째, 학생들의 참여에는 선거참여, 행사참여, 환경보호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학교행사는 비교적 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거참여에서 부정적 반응 27.1%와 환경보호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22.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학생들의 개방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관용과 타인종에 대한 이해, 타문화 존중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민주시민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명확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학생들 역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 중학생 727명이라는 한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제주도 지역의 전체학생의 태도로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민주시민태도의 측정변인으로 인간존중, 준법성, 자율성, 합리적 의사결정, 참여의식, 개방성의 6개 영역으로 한정시킴으로써 민주시민태도의 모든 영역에 걸쳐 세부적으로 조사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중학생이 갖추어야 할 민주시민태도에 대한 종합적인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 본 논문은 2008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민주시민태도의 의미.....	3
2. 민주시민태도의 구성요소	8
III. 연구 방법	15
1. 조사도구	15
2. 연구대상 및 표집	16
3. 자료의 처리	17
IV. 연구결과 및 논의	18
1. 인간의 존엄성	18
2. 준법성.....	21
3. 자율성	25
4. 합리성.....	28
5. 참여의식	31
6. 개방성	35
V. 요약 및 결론	39
※참고문헌.....	42
※Abstract.....	44
※부록.....	47

표 목차

<표 1> 민주시민태도의 구성요소.....	10
<표 2> 질문지 구성.....	15
<표 3> 지역별 질문지 배부현상과 회수현황.....	16
<표 4> 인격존중	19
<표 5> 타인의 인격적 대우.....	20
<표 6> 인권	21
<표 7> 규칙준수	22
<표 8> 공중도덕	23
<표 9> 질서의식	24
<표 10> 책임의식	25
<표 11> 솔선수범	26
<표 12> 책임완수	27
<표 13> 합리적 소비.....	29
<표 14> 대화와 토론.....	30
<표 15> 다수결 원리.....	31
<표 16> 선거참여	32
<표 17> 행사참여	33
<표 18> 환경보호	34
<표 19> 관용	36
<표 20> 타인종에 대한 이해.....	37
<표 21> 타문화 존중	38

I. 서론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듀이는 공동 관심의 범위가 확장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을 민주주의의 특징으로 보고, 민주주의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 두 가지를 제시한다.¹⁾ 하나는 사회성원이 공유하는 공동관심사의 수가 많고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 관심사의 인정을 사회통제의 방법으로서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러 사회집단 사이의 보다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습관이 변화한다는 것, 즉, 다양한 상호작용이 빚어지는 새로운 사태에 맞추어 끊임없이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바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의 특징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의 형태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공동생활의 형식이요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²⁾ 지금의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구성원 각자가 주인이 되는 시민에 의한 정부이다. 즉 좁은 의미의 민주주의제도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정착하여 일상생활에서 민주적으로 행동하며, 사고하며, 민주주의를 지속시키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태도를 가리켜 민주시민성(民主市民性, citizenship)이라 하며, 이를 함양하는 활동을 민주시민교육이라 한다.³⁾ 민주시민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민주시민의 자질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사회의 발전 정도에 따라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오늘날 민주국가들에 있어 민주주의를 실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개인의

1) 듀이, J(1916), 이흥우 역(2007),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교육과학사, pp. 154~155.

2) 위의 책, p. 155.

3) 전득주 외(1992), 「현대민주시민교육론」, 평민사, p. 13.

시민적 정신이나 자질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은 국민들이 사회 정치적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고 동시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쳐 주며, 선량한 시민으로 교육시키고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가져야 할 국민의식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인식시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 간 평화를 도모하는데 기여 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⁴⁾

사회과의 최종목표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이다. 보다 균형 있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 경제교육, 사회교육, 윤리교육, 역사교육 등 종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과 역시 중학교의 사회과 교과이다. 민주시민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중학교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중학생의 민주시민태도를 알아보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중학생의 민주시민태도를 조사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4) 김영수 저(1995) 「민주시민론」, 법문사, p. 15.

Ⅱ. 이론적 배경

1. 민주시민태도의 의미

1) 태도의 정의

태도(aptitude)라는 용어는 라틴어 aptus에서 온 것으로 적성(aptitude)이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하며, 준비됨 혹은 적응의 상태를 의미한다. 심리학적으로 태도는 ‘어떤 사람에게 행동을 준비하는 주관적 혹은 심리적 상태를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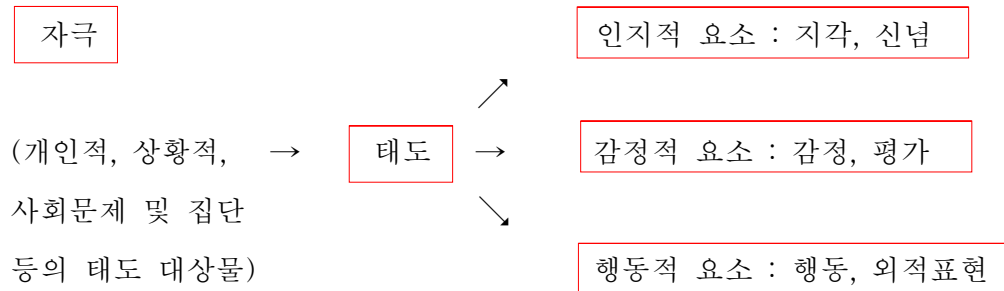
태도는 특정한 사물이나 인물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된 내재적 상태이다.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나 ①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도이며, ② 다양한 상황에서 태도 대상에 대한 개인적 반응(행위선택)의 일관성을 통해 추리될 수 있으며, ③ 경험을 통해 학습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속성들로 구성된다. 정의적 속성은 그 대상에 대한 생각에 수반되는 감정(좋다 또는 싫다), 그리고 행동적 속성은 그 대상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하려는 의도(준비성)를 의미한다.⁵⁾

한편, 토마스(Thomas)와 즈나니키(Znaniiecki, 1918)는 ‘한 개인의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의 상태’라고 간단히 정의하였다. 서스톤(Thurstone)은 태도를 ‘어떤 심리적 대상에 대한 좋거나 싫은 정서’라고 정의하였고, 알포트(Gordon Allport, 1954)는 ‘어떤 사람(혹은 물건)에 대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는 학습된 성향’이라고 정의하였다.⁶⁾ 다른 한편, 태도의 요소에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의 3가지의 구성요소들이 있으며,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어 일정한 태도의 조직 구성을 이루고 있다. 로젠버그(Rosenberg)와 하버랜드(Hoverland)는 태도의 3가지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있

5)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1994), 「교육학 용어사전」, 하우, p. 320

6) Phil Erwin(2006), 「태도와 설득」, 시그마프레스, pp. 3~6. 재인용.

다. 7)



태도에서 인지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개인이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 이해, 착상 등을 포함하여 평가적인 신념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대상에 대해 호의적, 비호의적, 비람직하다-바람직하지 않다, 선과 악 등의 속성을 포함하며, 대상에 대한 적절, 부적절의 반응 양식도 포함하고 있어 행동경향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감정적 요소는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이 좋고 나쁜 느낌이나 감정에 관한 것으로 대상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학시간은 지루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수학이라는 과목을 싫어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은 약한 정도에서부터 강한 정도까지 여러 가지 강도로 나타낼 수 있다.⁸⁾ 마지막으로 행동적 요소는 태도와 관련된 모든 행동적 준비상태(실행하려고 하는 경향)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대상을 돕거나 지지하고 싶을 것이며, 반면에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 그 대상을 해치거나 파괴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⁹⁾

결국 태도는 어떠한 상황 혹은 대상에 대해서 행동하려는 체계화된 경향성이며, 개인의 경험과 감정적 속성을 포함해 후천적으로 학습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지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현대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이다.

이와 관련해 코헨(Chohen)은 민주시민의 태도에 대해 구성원의 합리적 지성과 심리적 자질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¹⁰⁾ 첫째, 인간의 본질적 불안정성에 대

7) 이민영(1998), “사회복지전공자들의 빈곤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 8.

8) 이광자·엄신자·진신현 공저(2002), 「현대사회심리학」, 아세아문화사 p. 117.

9) 정길수(1985), 「사회심리학」, 법문사, pp. 48~49.

10) 박미우(1994) 전계논문, p. 20. 재인용.

한 인정. 둘째, 비판 정신. 셋째, 융통성. 넷째, 타협심. 다섯째, 인내심 등을 중요한 심리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스웰(Lasswell)은 한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를 수반하는 심리적 속성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민주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¹⁾ 첫째, 타인에 대하여 경직되고 배타적인 자세가 아닌 온화하고 포용력 있는 태도를 표현하는 개방성, 둘째, 무엇이든 혼자만 갖거나 결정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떠한 가치나 이해관계를 토의하고 합의하며 함께 공유하려는 자세, 셋째, 일원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다원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추구하는 태도, 넷째, 인간의 잠재력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신뢰하는 속성, 다섯째, 불안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들고 있다. 또한 라스웰은 민주적 태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며 얻어진 합의에 대해서 지키고 따르는 준법정신 내지 질서의식을 언급했다. 다음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민주시민태도를 나타내는 민주시민성 혹은 민주시민이 자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민주시민성

민주주의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태도인 민주시민성에서 시민성 (citizenship)이라는 용어는 시민이라는 ‘citizen’과 자질, 조건이라는 ‘ship’이 합성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시민성이라는 말 속에는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즉 시민이라는 지위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지칭하는 셈이다. 또한 라틴어로서 CIVITAS는 ‘국가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제도가 구성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적 역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 개념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 공동 목적, 공동체 의식 등의 의미가 있다.¹²⁾

한편, 시민성은 좁은 의미에서는 단지 한 국가 내에서 법적인 지위와 투표,

11) Lasswell, H.D.(1951), *The Political Writings of Harrold D. Lasswell*(Glencoe, 3: The Free Press.), pp. 495~510.

12) 이해주(1997), “ 민주시민성과 사회교육의 관련성”, 「사회교육학연구」, 제3권 제 12호, 한국평생교육학회, p. 23.

정부의 조직, 공직에 취임, 법적인 권리와 책임과 같은 정치적 기능들에 밀접히 관계된 활동들을 포함한다. 넓은 의미의 시민성은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발휘되는 바람직한 개인적 자질들과 거의 동등한 의미이다.¹³⁾

민주주의를 이념보다 제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도로써 민주주의는 흔히 기계에 비유되고 정치 문화를 비롯한 다른 전체 조건은 기계가 놓여 있는 외부 환경에 비유된다. 민주시민의 자질과 조건은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의 인성적 자질에 비유할 수 있다. 따라서 기계에 비유되는 제도가 아무리 민주적이고 우수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시민의 자질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의 발전과 민주 국가의 건설은 그 주역인 시민들의 자질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태도와 자질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¹⁴⁾

한편, 알몬드(Almond)와 버바(Verba)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질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⁵⁾ 첫째, 시민은 정치적 활동을 통하여 삶의 조건과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물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 이를 법에 호소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신감, 둘째, 국가적, 지역적 공공의 사물과 사태 처리를 위한 정당한 정치적 절차의 존중과 자부심, 셋째,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적 활동에 참여하는 책임감. 넷째, 사회와 국가에 대한 신의와 충절, 다섯째, 여러 정당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정당에 참여하는 공개적 정당성, 여섯째, 자유로운 정치적 논의와 토론과 언론 등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 및 능력, 일곱째,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치적 정보와 지식, 여덟째, 타인의 인권과 의사에 대한 존중과 신뢰, 아홉째, 정부 고위층과 정치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의 권위존중, 마지막으로, 안정감과 호응, 문제해결의 절차적 규범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능력, 각종 자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그들 공동의 협력을 통한 사회 통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13) 김항원(1999), “학교생활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백론논총」 제 1집. 제주대학교, p. 233에서 재인용.

14) 한국국민윤리학회,(1982) 「민주시민을 위한 윤리·도덕」, 서울: 형설출판사, p.56, 박미우(1994), 「민주시민의 태도 함양을 위한 중등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 18에서 재인용.

15) G.A.Almond & S.Verba(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6-23;박미우(1994) 전계논문, p. 19에서 재인용.

추정훈은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판단하며, 참여해야 하며, 민주시민은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지적으로 대처하고 직면하는 많은 사회문제해결에 적극 관여하는 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역할로 미국사회과교육학회(NCSS)의 정의를 들고 있다.¹⁶⁾ ① 공동체의 사건과 업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② 나 자신과 이웃, 공동체에 관하여 걱정하기. ③ 개인적 재능과 기능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에 기여하기. ④ 자발적인 행동. ⑤ 문제에 관하여 스스로 교육하고 토론에 참여하기. ⑥ 투표하기. ⑦ 봉사과 기부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등이 그것이다. 차경수는 시민의 자질을 개인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의 여러 면에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사회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면서 민주시민은 민주주의적인 이념과 원리를 신봉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¹⁷⁾ 정세구는 민주시민요건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실천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 다수결 원리에 대한 이해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올바르게 누리는 자유와 책임 완수, 준법정신, 마지막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주체적 결정을 내리는 민주원리의 준수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민주시민의 요건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굳은 신념, 민주적 기능이나 능력의 신장 등을 제시하였다.¹⁸⁾ 전숙자는 민주시민을 민주적 기본 가치와 이념을 내면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민주적 가치를 조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한면희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였다.¹⁹⁾ 또한 광병선은 바람직한 민주시민은 기본 질서, 법질서 등 기본 생활 규범을 잘 지키는 인간, 공동선을 추구하여 타인과 공평한 삶을 가질 수 있는 인간,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 자기의 주장을 떳떳이 펼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조정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

16) 추정훈(2002), "사회과교육 목표로서의 민주시민성", 「사회과교육」, 제41권 4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pp. 11~12 재인용.

17) 차경수(2003), 「현대의 사회과 교육」, 서울: 학문사, p. 48.

18) 정세구(1985), 「한국정신 교육의 과제」, 서울: 교육과학사, pp. 120~121.

19) 박은중(2007), "세계화 시대에 바람직한 한국 민주시민교육 접근 방법 탐색", 「인문학연구」, 제34권 제 1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 29 재인용.

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였다.²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태도를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가져야할 의식, 성향, 감정, 행동, 태도 및 자질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 민주시민태도의 구성요소

민주시민의 자질에 대한 정의는 각 사회와 시대에 따라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버츠(betts)는 민주시민의 도덕적 덕목을 12가지로 제시하면서 의무덕목과 권리덕목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시민의 의무덕목으로는 정의·평등·권위·참여·진실·애국심을 시민의 권리덕목으로 자유·다양성·사생활·공정한 절차·재산·인권 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덕목들이 민주주의를 올바른 형태로 지켜주는 기본적 가치라고 규정하고 있다.²¹⁾

다음으로 레인(Lane)은 시민의 의무를 애국심이나 충성심 등으로 흔히 표현되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 준법정신, 정부에 대한 신뢰와 존경, 정치생활에서 지켜야 할 책임의식, 타인에 대한 사려와 공공예절 등과 같은 자제력, 위기 시 국가, 사회의 요구에의 호응, 사회관계에서의 정직성, 국가 이념의 합리성에 대한 이해와 합의, 자국민의 특수한 자질에 대한 긍지 등이다.²²⁾

한편, 알몬드(Almond)와 버바(Verba)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개인들이 속하고 있는 정치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법을 준수하고 정책을 따르며, 필요할 때 참여 할 자신감, 주위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적 신뢰, 마지막으로 주위 사람들과 타협하고 이익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들고 있으며, 힐(Hill)은 타인의 존중 자유, 평등, 정의, 합리성 등을 미국의 기본적인 민주적 전통과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²³⁾

20) 광병선 외(1994), 「민주시민교육」, 학국교육개발원, p. 35.

21) R. F. Butts(1988), 『The Morality of democratic Citizenship』, 오금주(2002), “중학교 사회교과교육과 민주시민의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p. 6에서 재인용.

22) 이진형(2003), “중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3. 재인용.

23) 오금주(2002), 전개 논문, p. 7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연구를 살펴보면 중앙교육연구보고서에서는 인권 존중, 공익을 위한 봉사와 협동, 자유와 책임, 준법정신, 자치생활에의 참여를 들고 있다.²⁴⁾ 차경수는 시민적 자질을 첫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둘째, 자기의 의무와 책임완수, 셋째, 애국심, 넷째,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와 협동, 다섯째, 자유와 평등, 여섯째, 인간의 존엄성, 일곱 번째로 국민의 정치적 참여 등으로 보았다.²⁵⁾ 전득주는 민주적 태도를 첫째, 준법정신 및 질서의식, 둘째, 관용의 태도, 셋째, 동료 시민을 신뢰하는 태도, 넷째,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권리의식, 다섯째, 정치지도자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비판의식, 여섯째, 정직성 등으로 제시하였다.²⁶⁾ 이영덕은 민주 시민성의 기본적 내용으로 첫째, 인권존중, 둘째, 공익을 위한 협동과 봉사, 셋째, 준법정신, 다섯째, 책임 있는 참여 등을 제시하였다.²⁷⁾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중학교 민주시민교육 요구조사」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리로 인간의 존엄성, 기본 질서,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자유민주주의사회의 절차를 제시하였다.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Ⅰ)에서는 타인을 존중하고 대화하는 시민성, 개인의 책임, 자율, 시민다운 마음, 개방적인 마음, 원칙존중과 타협, 다양성에 관한 관용, 인내와 지구력, 정열, 관대함, 국가와 그 원칙에 대한 충성을 들고 있다.²⁸⁾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민주시민태도를 조사 연구’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의 민주시민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정리해 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민주시민태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많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태도의 구성요소를 빈도수가 비교적 많은 인간존중, 준법성, 자율성, 합리성, 참여의식, 그리고 개방성으로 하여 중학생의 민주시민태도를 조사하였다.

24) 중앙교육연구소(1967), 「한국문화와 민주시민교육」, p. 134, 이진형(2003), 전계논문 p. 13에서 재인용.

25) 차경수(2004) 전계서 p. 48.

26) 전득주 외(1994) 전계서 p. 49.

27) 중앙교육연구소(1967), 이진형(2003) 전계논문 p. 14에서 재인용.

28) 교육부(1999), 「교육과정해설(Ⅰ)」, 대한교과서, p.93.

<표 1> 민주시민태도의 구성요소

구분	라 스 웰	알 몬 드& 바 버	정 세 구	곽 병 선	버 츠	레 인	힐	중앙교 육연구 소('67)	차 경 수	전 득 주	이 영 덕	한국교 육개발 원	교 육 부	빈도 수
인간존중		0	0	0		0	0	0	0		0	0	0	10
자율성			0		0		0		0				0	5
평등					0		0		0					3
정의					0		0							2
공동체의 식		0				0							0	3
개방성	0			0						0			0	4
준법성	0	0	0	0		0		0		0	0		0	9
참여의식		0						0	0		0		0	5
합리성	0			0		0	0		0			0	0	7

(1)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개인별로 보면 각 능력의 차이는 있으나 가치면에서 보면 모두가 고귀한 존재이고 존엄한 존재들이다. 루소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하여 군주 및 귀족사회를 부정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살릴 수 있는 민주사회를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어 프랑스 인권선언에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칸트는 인간존엄성에 무한한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너의 인격 및 여러 다른 인격에 있어서의 인간성을 항상 목적으로 취급하고 결코 다른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도록 행위하라”고 했다. 페스탈로찌는 “왕좌에 앉은 임금이나 초가집 어두운 방구석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나 다 같은 존엄한 인간이다”라고 하였다.

인간은 존엄한 가치적 존재이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즉 존귀한 인권을 가진 가치적 존재이며, 윤리적·인격적으로 주체적인 가치를 가진 귀중한 존재이다. 물론, 가치에는 향락가치, 사용가치, 소비가치, 교환가치 등이 있는가 하면 정서적 가치, 윤리적 가치, 절대적 가치(종교) 등 수많은 가치가 있으며, 가치 그 자체는 절대적인 성질을 지닌다.²⁹⁾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으로서 태어난 인간 자체를 존중한다는 매우 중요한 개

29) 윤리교재편찬위원회편(1991), 「현대이념사조와 사상」, 삼광출판사, pp. 25~26.

넘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다른 조치가 없다면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잘 보호되고 있는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하고자 하는지와 관련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존재로 인정한다는 평등의식 혹은 권위에서 벗어나는 의식과 나 아닌 다른 이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³⁰⁾

(2)준법성

민주 시민이 가정이나 학교, 사회 어디서든지 서로 합의하고 약속된 사항을 따르고 지키는 준법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한 태도이며, 사회의 구성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 사회 질서는 문란하게 되고 그 질서 문란은 곧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연결되어 국민들의 생활을 위태롭게 한다.³¹⁾

준법정신은 협동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불가분의 가치이며, 그것은 인권존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외면적,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여 협동적으로 정해진 법속에서 나의 목적과 행동방식을 발견하며 따르는 것이다. 준법생활은 민주국가를 유지하고 사회발전을 합리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³²⁾ 준법정신의 함양은 민주 국가의 성패와 연결되므로 민주 시민이라면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합리성

이홍우(1995)에 의하면, 합리적인 사고 및 태도는 개인의 편파적인 감정이나 이해로 말미암아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에도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줄 알게 됨으로써 서로 성실하게 대화하려는 노력을

30) 류혜영(2007), “민주적인경험이 시민성의 태도 및 실천영역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p. 15~16.

31) 전득주외(1994), 전개서, pp. 45~46.

32) 김창훈(2003), “제주도 중학생의 민주시민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 13.

통해 좀 더 옳은 생각에 도달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다. 이 노력은 판단이 사적인 감정과 이해에 치우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배제하면서 주제내용에 대해 연마된 생각을 얻어낸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까지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³³⁾

따라서 다양한 개성이 존재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사회에서는 여러 공적,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제의식을 형성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4) 참여의식

시민으로서의 최우선적으로 지녀야 할 윤리 덕목은 참여의식이며, 참여의식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시되어야 한다.³⁴⁾

참여 방식의 종류로 랭톤(Langton, 1988)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①선거참여 : 공적 지위의 차지, 투표, 의사결정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후원

②시민활동 : 시민 집단들의 정책결정과 수행, 정부의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노력

③시민의 참여 : 정책 결정과 수행, 정부의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노력

④의무적 참여 : 법률적 의무와 군 복무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강제적으로 참여여하는 활동

⑤사회적 참여 : 타인과 지역사회 또는 전체 국민을 돕는 일의 참여 등의 봉사적 차원의 참여를 비롯하여 환경보호, 범죄 예방, 문화보존, 평화로운 사회관계

33) 최명선(1997), "대화적 합리성과 교육", 「사회교육과학연구」, 제 2권.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학연구소, pp. 160~161, 재인용.

34) 류혜영(2007), "민주적인경험이 시민성의 태도 및 실천영역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p. 13~14. 재인용.

의 유지, 세계적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관심 등이다.³⁵⁾

결국,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할 때 사회의 문제점의 파악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5) 자율성

도슨(Dawson, 1981)은 자율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의 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기초를 제공해 주는 개념이라고 하여 자시자신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현실요법의 기본흐름과 맥락을 같이하며, 김동호(1985)는 자율이라는 개념에는 ‘외부의 간섭 없이 자기혼자 한다’는 뜻과 ‘통제하여야 한다’라는 뜻의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가 자신에게 규율을 주는 즉, 스스로 자기를 규제·통제하는 것을 자율이라 정의할 수 있다³⁶⁾고 하였다. 즉 자율성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맹목적 판단이나, 감정적 판단, 흑백논리를 배제하여 합리적 사고에 의해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6) 개방성

오늘날 민주사회는 세계화시대를 맞아 국제결혼, 해외 유학 등이 급증하고, 세계 각국의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 음식문화, 놀이 문화, 가족 문화, 주택문화, 화폐, 의상, 다양한 교통수단, 자원 이용, 자연에 대한 적응의 다양성 등 범세계적 시각에서 세계시민으로서 개방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세계의 다양한 지역의 학습을 통해 다양한 자연, 문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며, 다원론적 시각에서 인간의 다양성, 의견과 선호,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즉, 타인에 대한 경직되고 배타적인 태도를 갖기보다는 온화하고 포용적인

35) 윤미경(2006), “고등학생의 민주 시민 의식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p. 17~18.

36) 김경희(2002), “현실요법을 적용한 자기통제 훈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율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6~10 재인용.

태도를 나타내는 개방성을 필요로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도구

<표 2> 질문지 구성

구성요소	하위요소	질문내용
인간존중	인격존중	나는 친구의 외모나, 가정환경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인격적 대우	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주는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	나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준법성	규칙준수	나는 교복을 줄여 입거나 교칙에 어긋나는 복장이나 외모를 하지 않는다.
	공중도덕	나는 도서관,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조용히 한다.
	질서의식	나는 버스를 타거나 물건을 살 때 차례를 잘 지킨다.
자율성	책임의식	나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 수행한다.
	솔선수범	나는 청소시간이나 자율학습 시간에는 누군가의 지도가 없어도 스스로 한다.
	책임완수	나는 계획된 일이나 과제 등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낸다.
합리성	합리적 소비	나는 물건을 살 때 충동적으로 사지 않고 가격이나 실용성 등을 생각하고 구입한다.
	대화와 토론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주변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해결한다.
	다수결의 원리	나는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학급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결정하면 결정된 것에 따른다.
참여의식	선거참여	나는 학생회장이나 반장선거 등의 선거에 꼭 참여한다.
	행사참여	나는 학교 소풍이나 행사에 잘 참여한다.
	환경보호	나는 환경을 위해서 물을 아껴쓰거나 재활용을 한다.
개방성	관용	나는 친구가 잘못을 했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용서한다.
	타인종에 대한 태도	나는 피부색이 다른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다.
	타 문화 존중	나는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의 문화도 존중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고, 질문문항은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태도의 구성요소를 인간존중, 준법성, 자율성, 합리성, 참여의식, 그리고 개방성으로 하여, 중학생의 민주시민태도를 조사하였다.

각 구성요소별 3문항씩 18문항과 학생들의 환경적 문항 5문항 등 총 23문항으로 구성하고 질문지는 리커트(Likert)식으로 제작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위의 <표 2>와 같다.

2.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예비조사는 2007년 12월 10일 남제주군 지역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예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문항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7년 12월 17일부터 30일까지 <구>제주시, <구>서귀포시, <구>읍·면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학교의 학급 수에 따라 무작위로 표집하여 제주시 4개교, 서귀포시 2개교, 읍·면지역의 2개 학교에서 20개 학급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학급은 제주도 중학교의 학급수 비율에 따라 제주시 11개 학급, 서귀포시 4개 학급, 읍·면지역 5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총 750부를 배부하여 738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에서 응답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것 12부를 제외한 727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분포상황은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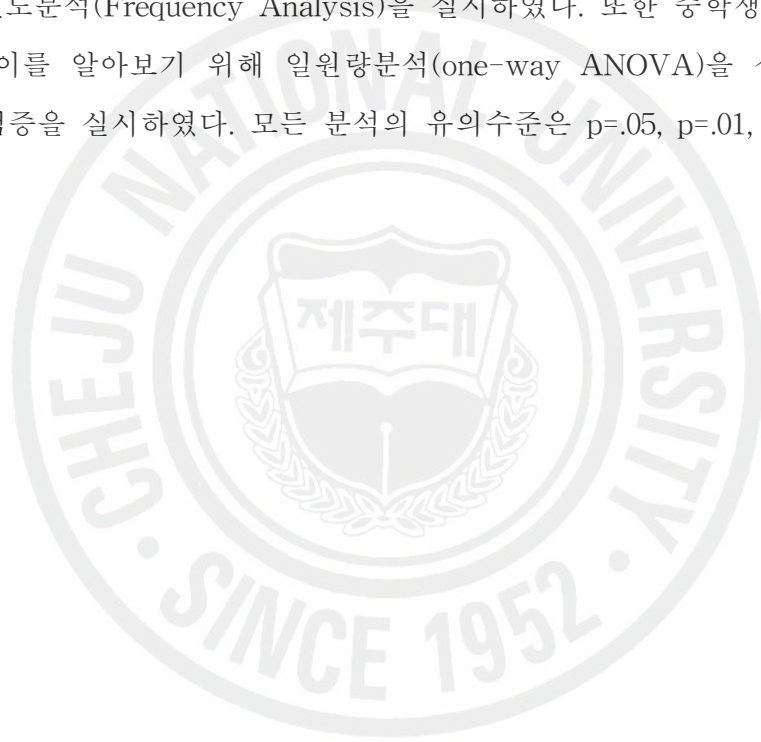
<표 3> 지역별 질문지 배부현상과 회수현황

구분	학교수	배부수	회수된 수	통계처리수	회수율(%)
<구>제주시	4	410	406	403	99.0
<구>서귀포시	2	200	195	190	97.5
<구>읍·면지역	2	140	137	134	97.8
계	8	750	738	727	98.1

3.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자료의 처리는 사회과학 통계처리도구인 SPSS 12.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질문지 문항은 리커트(Likert)식 5단계 척도로 가능한 한 연속적인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 5단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증분석방법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학생들의 민주시민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p=.05$, $p=.01$, $p=.001$ 이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조사도구에서 제시한 18문항에 대한 결과를 영역별 문항 순서에 따라 논의한다. 첫째, 각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반응 분포, 반응경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각 영역별 태도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그 평균을 그 영역에 대한 태도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각 배경변인별 유의한 차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유의한 차이를 중심으로 반응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1. 인간의 존엄성

민주시민태도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격존중, 타인의 인격적대우, 인권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여 알아보았다.

1) 인격존중

인격존중에 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친구의 외모나 가정환경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 인간 존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인격존중에 관한 긍정적인 응답은 57.1%이고 부정적인 반응이 13.7%로 나타나 이는 학생들이 높은 인격존중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과 성적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M=3.71)가 남자(M=3.50)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성적별로는 성적이 높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표4> 인격준중

N	M (평균)	SD (표준편차)	반응구분 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26	2.3733	1.10037	178	237	211	62	38
			(24.5%)	(32.6%)	(29.0%)	(8.5%)	(5.2%)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평균)	SD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345	3.504	1.06467	48.482 (.022)**
	여자	382	3.7173	1.12647	
학년	1학년	261	3.5134	1.00996	34.287 (.068)*
	2학년	237	3.6456	1.12790	
	3학년	229	3.7424	1.16181	
성적	상	234	3.7393	1.01723	34.611 (.014)**
	중	250	3.6514	1.09633	
	하	142	3.4014	1.20907	
거주지역	<구>제주시	403	3.3053	1.13014	39.980 (.942)
	<구>서귀포시	190	3.3053	1.13014	
	<구>읍면지역	134	3.6418	1.10639	
보호자 학력	중졸	70	3.4143	1.20978	26.169 (.203)
	고졸	283	3.6396	1.11603	
	대졸	366	3.6694	1.05856	

* p < .05, ** p < .01 *** p < .001

2) 타인의 인격적 대우

타인의 인격적 대우에 관해서는 “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주는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으며,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76.6%로 부정적인반응의 13.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성적별 보호자 학력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M=4.29)가 남자(M=4.02)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 성적별로는 성적이 높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타인의 인격적 대우

N	M (평균)	SD (표준편차)	반응구분 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26	1.8306	1.09176	383 (52.7%)	174 (23.9%)	108 (14.9%)	31 (4.3%)	30 (4.1%)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평균)	SD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344	4.0262	1.15145	62.329 (.001)**
	여자	382	4.2984	1.01947	
학년	1학년	261	4.0268	1.15494	46.206 (.011)
	2학년	237	4.1780	1.19667	
	3학년	229	4.3231	.86371	
성적	상	234	4.4188	.87637	42.914 (.000)***
	중	250	4.2286	1.02646	
	하	141	3.6028	1.35161	
거주지역	<구>제주시	402	4.1741	1.11195	50.267 (.179)
	<구>서귀포시	190	4.2579	.94942	
	<구>읍면지역	134	4.0299	1.20737	
보호자 학력	중졸	70	3.8714	1.06215	39.868 (.002)**
	고졸	283	4.1025	1.09808	
	대졸	365	4.3041	1.05253	

* p < .05, ** p < .01 *** p < .001

3) 인권

인간존중에서 인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나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를 <표 6>에서 살펴보면, 긍정적인 반응(40.7%)이 부정적 반응(24.9%)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적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적별로는 상위권(M=3.07), 하위권(M=3.11) 학생에 비해 중위권(M=3.36)학생이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표 6> 인권

N	M (평균)	SD (표준편차)	반응구분 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26	2.7769	1.13978	107 (14.7%)	189 (26.0%)	249 (34.3%)	121 (16.6%)	60 (8.3%)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평균)	SD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345	3.2667	1.15571	36.288 (.328)
	여자	381	3.1837	1.12524	
학년	1학년	261	3.2375	1.20459	24.209 (.968)
	2학년	236	3.2161	1.09540	
	3학년	229	3.2140	1.11315	
성적	상	233	3.0730	1.15550	27.482 (.005)**
	중	250	3.3657	1.10895	
	하	142	3.1197	1.15766	
거주지역	<구>제주시	403	3.1985	1.16768	31.810 (.269)
	<구>서귀포시	189	3.1746	1.13746	
	<구>읍면지역	134	3.3657	1.05161	
보호자 학력	중졸	70	3.3000	1.15909	16.293 (.678)
	고졸	282	3.2518	1.05561	
	대졸	366	3.1913	1.20115	

* p < .05, ** p < .01 *** p < .001

2. 준법성

중학생의 준법성을 알아보기 위해 규칙준수, 공중도덕, 질서 의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1) 규칙준수

규칙준수에 대한 중학생들의 태도는 “ 나는 교복을 줄여입거나 교칙에 어긋나는 복장이나 외모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표 7>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대답이 52%로 부정적인 대답의 17.5%에 비해 높게 나타나

비교적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 학년별, 성적별, 보호자 학력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M=3.70)가 여자(M=3.45)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학년별로는 1학년(M=3.73)이 가장 높고 3학년(M=3.52), 2학년(M=3.45)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성적별로는 상위권(M=3.78)학생이 중위권(M=3.52) 하위권(M=3.36)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호자 학력별로는 대졸(M=3.67)이 가장 높게, 고졸(M=3.44)이 중졸(M=3.57)보다 긍정적 반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7> 규칙준수

N	M (평균)	SD (표준편차)	반응구분 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25	2.4248	1.13407	194 (26.7%)	184 (25.3%)	220 (30.3%)	99 (13.6%)	28 (3.9%)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평균)	SD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344	3.7093	1.14404	42.792 (.002)**
	여자	381	3.4541	1.11266	
학년	1학년	261	3.7318	1.07279	30.071 (.016)*
	2학년	236	3.4534	1.09639	
	3학년	229	3.5219	1.22185	
성적	상	234	3.7821	1.14578	32.314 (.001)**
	중	248	3.5201	1.05860	
	하	142	3.3662	1.24615	
거주지역	<구>제주시	401	3.6434	1.12250	37.174 (.172)
	<구>서귀포시	190	3.4632	1.12250	
	<구>읍면지역	134	3.5299	1.21203	
보호자 학력	중졸	70	3.5714	1.22263	24.450 (.034)*
	고졸	283	3.4417	1.07813	
	대졸	364	3.6758	1.15440	

* p < .05, ** p < .01 *** p < .001

2) 공중도덕

공중도덕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나는 도서관,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조용히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인 반응(58.4%)이 부정적 반응(16.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학생들이 공중도덕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별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과 성적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M=3.78)가 여자(M=3.60)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성적별로는 성적이 상위권(M=3.84) 중위권(M=3.72), 하위권(M=3.37)으로 내려갈수록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표 8> 공중도덕

N	M (평균)	SD (표준편차)	반응구분 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24	2.3108	1.19651	235 (32.3%)	190 (26.1%)	182 (25%)	73 (10%)	44 (6.1%)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평균)	SD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342	3.7895	1.24062	43.795 (.041)**
	여자	382	3.6073	1.14912	
학년	1학년	259	3.7722	1.16732	31.319 (.230)
	2학년	237	3.7089	1.18770	
	3학년	228	3.5877	1.123325	
성적	상	232	3.8448	1.16294	33.300 (.001)***
	중	249	3.7249	1.14670	
	하	142	3.3732	1.31337	
거주지역	<구>제주시	401	3.6608	1.18941	39.604 (.630)
	<구>서귀포시	190	3.7053	1.19411	
	<구>읍면지역	133	3.7744	1.22237	
보호자 학력	중졸	70	3.5857	1.31318	25.508 (.537)
	고졸	281	3.6619	1.18153	
	대졸	365	3.7370	1.18687	

* p < .05, ** p < .01 *** p < .001

3) 질서의식

질서의식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나는 버스를 타거나 물건을 살 때 차례를 잘 지킨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표 9>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부정적 응답이 7.8%로 대부분 학생들이 질서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성적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적별로는 상위권(M=3.90), 중위권(M=3.71), 하위권(M=3.55)로 성적이 높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표 9> 질서의식

N	M (평균)	SD (표준편차)	반응구분 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26	2.2548	.96408	183 (25.2%)	246 (33.8%)	240 (33%)	43 (5.9%)	14 (1.9%)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평균)	SD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344	3.7884	1.01665	54.157 (.251)
	여자	382	3.7060	.91346	
학년	1학년	261	3.7471	.97923	38.501 (.425)
	2학년	236	3.6864	.91975	
	3학년	229	3.8035	.99154	
성적	상	234	3.9017	.97333	39.771 (.003)**
	중	249	3.7192	.92922	
	하	142	3.5563	1.00017	
거주지역	<구>제주시	402	3.7313	.98490	45.927 (.451)
	<구>서귀포시	190	3.8158	.90429	
	<구>읍면지역	134	3.6866	.98422	
보호자 학력	중졸	70	3.7714	.91954	31.214 (.091)
	고졸	282	3.6454	.96659	
	대졸	366	3.8115	.96797	

* p < .05, ** p < .01 *** p < .001

3. 자율성

자율성에 대해서는 책임의식과 솔선수범, 책임완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1) 책임의식

책임의식에 대해서는 “ 나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 수행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표 10>과 같이 보통으로 하고 있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30.5%로 나타나 중학생들의 책임의식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책임의식

N	M (평균)	SD (표준편차)	반응구분 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27	2.6616	.87099	68 (9.4%)	222 (30.5%)	339 (46.6%)	84 (11.6%)	14 (1.9%)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평균)	SD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345	3.3449	.90854	48.530 (.947)
	여자	382	3.3325	.83678	
학년	1학년	261	3.3602	.88175	31.389 (.196)
	2학년	237	3.2574	.82672	
	3학년	229	3.3974	.90039	
성적	상	234	3.5043	.84334	32.526 (.000)***
	중	250	3.3371	.84334	
	하	142	3.0704	.92750	
거주지역	<구>제주시	403	3.3375	.87830	39.284 (.776)
	<구>서귀포시	190	3.3684	.84268	
	<구>읍면지역	134	3.2429	.95456	
보호자 학력	중졸	70	3.2429	.95456	23.273 (.414)
	고졸	283	3.3145	.86911	
	대졸	366	3.3770	.86002	

* p < .05, ** p < .01 *** p < .00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위권의 학생(M=3.50)이 가장 높게, 중(M=3.33)과 하(M=3.07)로 내려올수록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2) 솔선수범

솔선수범에 대해서는 “나는 청소시간이나 자율학습시간에는 누군가의 지도가 없어도 스스로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표 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44%로 많았고, 긍정적 응답(31.2%)이 부정적 응답(25.3%)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 솔선수범

N	M (평균)	SD (표준편차)	반응구분 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25	3.0014	3.20113	64 (8.8%)	163 (22.4%)	320 (44%)	144 (19.8%)	33 (4.5%)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평균)	SD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344	3.0872	1.02360	39.451 (.475)
	여자	381	3.1391	.93136	
학년	1학년	261	3.1571	1.00491	24.106 (.658)
	2학년	236	3.1017	.87412	
	3학년	228	3.0789	1.04223	
성적	상	234	3.3675	.99006	25.189 (.000)***
	중	249	3.1032	.91332	
	하	142	2.7305	.97746	
거주지역	<구>제주시	401	3.1421	.96553	31.312 (.370)
	<구>서귀포시	190	3.1316	1.00715	
	<구>읍면지역	134	3.0075	.96164	
보호자 학력	중졸	70	2.8143	.95238	16.810 (.008)
	고졸	282	3.0816	.94910	
	대졸	365	3.1973	.99697	

* $p < .05$, ** $p < .01$ *** $p < .00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적에서만 유의한 차($p < .001$)를 보이고 있으며,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M=3.90$)이 가장 높고 중위권($M=3.71$)과 하위권($M=3.55$)으로 갈수록 술선수범 자세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책임완수

맡은 일에 대한 중학생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나는 계획된 일이나 과제 등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표 1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44.7%)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 학생이 29.1%, 부정적 학생이 26.1%로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 책임완수

N	M (평균)	SD (표준편차)	반응구분 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27	2.9450	.94752	51 (7%)	161 (22.1%)	325 (44.7%)	157 (21.6%)	33 (4.5%)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평균)	SD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345	3.0232	.95207	39.018 (.390)
	여자	382	3.0838	.94372	
학년	1학년	261	3.0575	.98476	23.577 (.974)
	2학년	237	3.0633	.98476	
	3학년	229	3.0437	.99022	
성적	상	234	3.4444	.95786	23.603 (.000)**
	중	250	2.9771	.85949	
	하	142	2.6127	.89798	
거주지역	<구>제주시	403	3.1042	.96678	30.143 (.036)**
	<구>서귀포시	190	3.0842	.96678	
	<구>읍면지역	134	2.8657	.89098	
보호자 학력	중졸	70	3.3143	1.09733	16.228 (.000)***
	고졸	282	3.3227	1.04972	
	대졸	366	3.2951	1.05484	

* $p < .05$, ** $p < .01$ *** $p < .00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적, 거주지역과 보호자의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적에 따라서는 상(M=3.44)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높게, 중위권(M=2.97)과 하위권(M=2.61)로 올수록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으며, 상위권 학생이 책임완수 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보호자 학력에 따라서도 대졸이상(M=3.29)보다 고졸(M=3.32)과 중졸(M=3.31) 이하의 학생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 지역별로는 <구>읍면지역(M=2.86)이 가장 낮게, <구>서귀포시(M=3.08)가 조금 높게, <구>제주시(M=3.10)지역은 책임 완수를 하려는 태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합리성

합리성에 대해서는 합리적 소비, 대화와 토론,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 알아보았다.

1) 합리적 소비

합리적 소비태도에 관해서는 “나는 물건을 살 때 충동적으로 사지 않고 가격이나 실용성 등을 생각하고 구입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대답을 한 학생(40.7%)이 부정적 응답(21.2%)보이나 38% 학생이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어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도를 살펴보면, 성별($p < .05$)과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M=3.39)가 여자(M=3.23)보다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구>읍면지역(M=3.14), <구>서귀포지역(M=3.28), <구>제주시(M=3.37)로 제주시 지역의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3> 합리적 소비

N	M (평균)	SD (표준편차)	반응구분 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26	2.6901	1.05260	112 (15.4%)	184 (25.3%)	276 (38%)	125 (17.2%)	29 (4%)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평균)	SD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344	3.3924	1.03864	40.108 (.045)*
	여자	382	3.2356	1.06087	
학년	1학년	260	3.3962	1.05486	27.262 (.006)**
	2학년	237	3.1308	1.01878	
	3학년	229	3.3974	1.01878	
성적	상	234	3.3846	1.13354	29.683 (.314)
	중	249	3.2951	.98056	
	하	142	3.3756	1.06436	
거주지역	<구>제주시	402	3.3756	1.06430	33.300 (.080)
	<구>서귀포시	190	3.2895	1.08842	
	<구>읍면지역	134	3.1418	.95108	
보호자 학력	중졸	70	3.3143	1.09733	19.173 (.946)
	고졸	282	3.3227	1.04972	
	대졸	366	3.2951	1.05484	

* p < .05, ** p < .01 *** p < .001

2) 대화와 토론

대화과 토론에 대해서는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주변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해결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 응답(35.7%)이 부정적 응답(21.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2.5%로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는 성별(p<.01)과 성적(p<.001), 거주지역별(p<.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M=3.27)가 남자(M=3.08)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적별로는 상위권(M=3.39), 중위권(M=3.32), 하

위권(M=2.92)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구>서귀포시(M=3.33)가 가장 높게, <구>제주시(M=3.19)와 <구>읍면지역으로 올수록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표 14> 대화와 토론

N	M (평균)	SD (표준편차)	반응구분 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24	2.8149	.96638	63	196	309	124	32
			(8.7%)	(27%)	(42.5%)	(17.1%)	(4.4%)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평균)	SD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342	3.0819	1.02706	42.799 (.006)**
	여자	382	3.2775	.89997	
학년	1학년	261	3.1533	1.00359	26.865 (.133)
	2학년	235	3.1191	.93522	
	3학년	228	3.2895	.95026	
성적	상	233	3.3991	.99542	27.201 (.000)**
	중	249	3.1494	.89544	
	하	142	2.9225	1.01809	
거주지역	<구>제주시	400	3.1875	.95111	32.852 (.006)
	<구>서귀포시	190	3.3263	.93086	
	<구>읍면지역	134	2.9776	1.02938	
보호자 학력	중졸	70	3.1429	.99689	18.026 (.302)
	고졸	282	3.1206	.90844	
	대졸	364	3.2363	1.00369	

* p < .05, ** p < .01 *** p < .001

3) 다수결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는 “나는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학급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결정하면 결정된 것에 따른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알아보았다. <표 15>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응답(58.0%)을 하고 있으며, 부정적

응답(9.2%)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 다수결 원리에 잘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p < .05$)과 성적별($p < .0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도 있다. 성별로는 여자 ($M=3.71$)가 남자($M=3.57$)보다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적별로는 상($M=3.81$), 중($M=3.64$), 하($M=3.38$)로 갈수록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어 상위권 학생들이 다수결 원리에 가장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 다수결원리

N	M (평균)	SD (표준편차)	반응구분 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23	2.3499	.94332	134 (18.4%)	288 (39.6%)	234 (32.2%)	48 (6.6%)	19 (2.6%)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평균)	SD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342	3.5731	.98026	55.278 (.038)*
	여자	382	3.7192	.90459	
학년	1학년	259	3.5560	.98031	37.859 (.114)
	2학년	236	3.6780	.90277	
	3학년	228	3.7281	.93663	
성적	상	232	3.8103	.97069	37.680 (.000)***
	중	249	3.6494	.87756	
	하	142	3.3873	1.00247	
거주지역	<구>제주시	399	3.6516	.97013	44.421 (.966)
	<구>서귀포시	190	3.6368	.91415	
	<구>읍면지역	134	3.6642	.90897	
보호자 학력	중졸	69	3.6087	.97343	29.025 (.915)
	고졸	282	3.6560	.89609	
	대졸	365	3.6603	.97196	

* $p < .05$, ** $p < .01$ *** $p < .001$

5. 참여의식

학생들의 참여에는 선거참여, 행사참여, 환경보호를 통해 알아보았다.

1) 선거참여

학생들이 선거에 얼마나 잘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는 학생회장이 나 반장선거 등의 선거에 꼭 참여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알아보았다.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 반응이 50.0%로 반 정도가 선거에 잘 참여하고 있으나 부정적 반응이 27.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6> 선거참여

N	M (평균)	SD (표준편차)	반응구분 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27	2.5928	1.39138	223 (30.7%)	140 (19.3%)	116 (22.8%)	101 (13.9%)	96 (13.2%)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평균)	SD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345	3.2261	1.43702	35.471 (.001)**
	여자	382	3.5550	1.33629	
학년	1학년	261	3.1916	1.33629	25.535 (.002)**
	2학년	237	3.4051	1.42185	
	3학년	229	3.6288	1.34662	
성적	상	234	3.5769	1.40373	25.016 (.001)**
	중	250	3.4257	1.37055	
	하	142	3.0423	1.38315	
거주지역	<구>제주시	403	3.2159	1.44227	31.664 (.000)***
	<구>서귀포시	190	3.6474	1.3399	
	<구>읍면지역	134	3.5970	1.29266	
보호자 학력	중졸	70	3.3143	1.49921	17.451 (.806)
	고졸	283	3.3993	1.40904	
	대졸	366	3.4317	1.36672	

* p < .05, ** p < .01 *** p < .00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 학년별, 성적별과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M=3.55)가 남자(M=3.22)보

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학년별로는 학년이 낮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적별로는 상위권으로 갈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거주지역별로는 <구>서귀포시(M=3.64)가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고 <구>읍면지역(M=3.59)이 <구>제주시(M=3.21)보다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행사참여

행사참여에 대해서는 “나는 학교 소풍이나 행사에 잘 참여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표 17>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이 61.6%로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 10.3%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7> 행사참여

N	M (평균)	SD (표준편차)	반응구분 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25	2.1890	1.04664	232 (31.9%)	216 (29.7%)	202 (27.8%)	58 (8%)	17 (2.3%)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평균)	SD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343	3.7289	1.10261	54.634 (.045)*
	여자	382	3.8848	.98936	
학년	1학년	259	3.7066	1.03747	38.499 (.104)
	2학년	237	3.9030	1.00163	
	3학년	229	3.8341	1.09563	
성적	상	234	3.8547	1.11967	40.213 (.190)
	중	248	3.8420	.97269	
	하	142	3.6690	1.09623	
거주지역	<구>제주시	402	3.8607	1.02366	43.629 (.148)
	<구>서귀포시	189	3.8148	1.05820	
	<구>읍면지역	134	3.6567	1.09066	
보호자 학력	중졸	70	3.6714	1.08643	31.351 (.094)
	고졸	282	3.7411	1.04712	
	대졸	365	3.8932	1.04149	

* p < .05, ** p < .01 *** p < .001

조사대상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M=3.72)에 비해 여학생(M=3.88)이 비교적 행사에 잘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중졸(M=3.67), 고졸(M=3.74), 대졸(M=3.89)로 갈수록 긍정적인 반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환경보호

환경보호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나는 환경을 위해서 물을 아껴쓰거나 재활용을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표 18> 환경보호

N	M (평균)	SD (표준편차)	반응구분 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25	2.8841	.97075	72 (9.9%)	136 (18.7%)	357 (49.1%)	124 (17.1%)	36 (5%)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평균)	SD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344	3.0901	1.01333	39.629 (.498)
	여자	381	3.1391	.90316	
학년	1학년	261	3.1391	.90316	24.897 (.060)
	2학년	235	3.0000	.89156	
	3학년	229	3.2096	1.03859	
성적	상	234	3.2179	.98461	26.624 (.016)**
	중	250	3.1257	.93709	
	하	140	2.9214	1.01122	
거주지역	<구>제주시	401	3.1122	1.00989	31.693 (.108)
	<구>서귀포시	190	3.2158	.90896	
	<구>읍면지역	134	2.9851	.92570	
보호자 학력	중졸	70	2.8857	1.07059	16.606 (.051)*
	고졸	281	3.0783	.96784	
	대졸	366	3.1803	.95099	

* p < .05, ** p < .01 *** p < .001

위의 <표 18>에서 알 수 있듯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9.1%로 가장 많았고 긍정적인 반응이 28.6%이고 환경보호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22.1%로 나타나 학생들이 환경보호에 소극적이고 30%정도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적별과 보호자 학력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적별로는 성적이 올라갈수록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6. 개방성

개방성에 대해서는 관용과 타인종에 대한 이해, 타문화존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1) 관용

남을 배려하는 관용적 태도에 대해서는 “나는 친구가 잘못을 했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용서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표 19>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 응답이 56.7%로 부정적 응답 8.5%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 중학생 대부분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과 성적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M=3.59)에 비해 여학생(M=3.75)이 비교적 더 관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성적별로는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관용적 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9> 관용

N	M (평균)	SD (표준편차)	반응구분 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25	2.3228	.95512	157 (21.6%)	255 (35.1%)	251 (34.5%)	46 (6.3%)	16 (2.2%)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평균)	SD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344	3.5959	1.01997	55.629 (.029)*
	여자	381	3.7507	.88750	
학년	1학년	260	3.6038	.94276	37.881 (.275)
	2학년	236	3.6992	.95792	
	3학년	229	3.7380	.96491	
성적	상	233	3.8069	.92454	38.691 (.004)**
	중	249	3.6791	.92236	
	하	142	3.4718	1.04300	
거주지역	<구>제주시	401	3.6534	.97829	45.106 (.648)
	<구>서귀포시	190	3.7316	.87683	
	<구>읍면지역	134	3.6916	.99454	
보호자 학력	중졸	70	3.7143	.93472	29.183 (.646)
	고졸	282	3.6312	.96863	
	대졸	365	3.6959	.95394	

* p < .05, ** p < .01 *** p < .001

2) 타인종에 대한 이해

중학교 학생들의 타인종에 대한 이해의 태도에 대해서는 “나는 피부색이 다른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표 20>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응답이 75.8%로 높게 나타나 타인종에 대한 이해의 태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 거주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M=4.01)에 비해 여학생(M=4.25)이 좀 더 긍정적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별로는 성적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구>읍면지역(M=3.98), <구>서귀포시(M=4.03),

<구>제주시(M=4.23)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표 20> 타인종에 대한 이해

N	M (평균)	SD (표준편차)	반응구분 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27	1.8611	.93373	321 (44.2%)	230 (31.6%)	141 (19.4%)	26 (3.6%)	9 (1.2%)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평균)	SD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345	4.0145	.98673	70.351 (.001)**
	여자	382	4.2513	.86924	
학년	1학년	261	4.0920	.95231	48.834 (.193)
	2학년	237	4.1013	.91958	
	3학년	229	4.2314	.92417	
성적	상	234	4.2179	.96257	49.963 (.043)*
	중	250	4.1514	.87790	
	하	142	3.9718	1.00314	
거주지역	<구>제주시	403	4.2382	.89932	52.801 (.005)**
	<구>서귀포시	190	4.0368	.95602	
	<구>읍면지역	134	3.9851	.97321	
보호자 학력	중졸	70	3.9857	1.12279	42.162 (.058)
	고졸	283	4.0742	.92912	
	대졸	366	4.2158	.89741	

* p < .05, ** p < .01 *** p < .001

3) 타문화 존중

타문화 존중의 태도에 대해서 “나는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의 문화도 존중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 5.2%이고 긍정적 응답이 64.0%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타문화 존중 태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개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학년별, 성적별과 보호자 학력별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학생(M=3.97)이 남학생(M=3.69)에 비해 타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M=3.98)이 가장 높게, 2학년과 1학년은 긍정적 반응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적별로는 상위권(M=3.94), 중위권(M=3.88) 학생에 비해 하위권(M=3.56)이 타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 타문화 존중

N	M (평균)	SD (표준편차)	반응구분 N(%)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27	2.1541	.95400	207 (28.5%)	258 (35.5%)	224 (30.8%)	19 (2.6%)	19 (2.6%)

배경 변인	변인구분	N	M (평균)	SD (표준편차)	t/F
성별	남자	345	3.6986	1.00962	61.959 (.000)***
	여자	382	3.9791	.88117	
학년	1학년	261	3.8046	.96284	42.031 (.036)*
	2학년	237	3.7637	.98456	
	3학년	229	3.9782	.90051	
성적	상	234	3.9487	.96591	42.125 (.000)***
	중	250	3.8886	.91259	
	하	142	3.5634	.98546	
거주지역	<구>제주시	403	3.8734	.96525	47.784 (.651)
	<구>서귀포시	190	3.8263	.87671	
	<구>읍면지역	134	3.7910	1.02653	
보호자 학력	중졸	70	3.6571	.97632	34.998 (.008)**
	고졸	283	3.7562	.95683	
	대졸	366	3.9508	.94088	

* p < .05, ** p < .01 *** p < .0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중학생들의 민주시민태도를 조사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도 중학생의 민주시민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도 내의 중학교의 20개 학급에서 727명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별, 학업성적별, 거주지역별, 보호자 학력별의 5가지 변인과 민주시민자질의 여러 가지 덕목 중 인간존중, 준법성, 자율성, 합리성, 참여, 개방성의 6가지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 인격존중과 타인의 인격적 대우, 인권에 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인간 존중태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인간존중 태도에 관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인권에 관한 태도는 남학생(M=3.26)이 여학생(M=3.18)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높다. 성적별로는 성적이 높을수록 인간존중에 대한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인권존중에 대해서는 중간 성적인 학생들이 가장 높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준법성에 관하여 규칙준수, 공중도덕, 질서의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나고 있다. 준법성에 관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고, 성적별로는 성적이 높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커진다. 보호자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율성에 관해서는 책임의식과 솔선수범, 책임완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본 결과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해 비교적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책임완수에 관한 응답 결과, 거주지역별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읍면지역(M=2.86)이 가장 낮게, <구>서귀포시(M=3.08)가 조금 높게, <구>

제주시(M=3.10)지역은 책임 완수를 하려는 태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이 자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중위권과 하위권으로 올수록 낮아지고 있다.

넷째, 합리성에 대해서는 합리적 소비, 대화와 토론,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 알아본 결과,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수결 원리를 제외하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해 합리적 의사결정에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합리적 소비활동에서는 여학생(M=3.23)에 비해 남학생(M=3.39)이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화와 토론’과 ‘다수결 원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합리적 소비활동의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구>읍면지역(M=3.14), <구>서귀포시(M=3.28), <구>제주시(M=3.37)로 제주시 지역의 학생들이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대화와 토론에 관한 거주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구>서귀포시(M=3.33)가 가장 높게, <구>제주시(M=3.19), <구>읍면지역(M=2.97)으로 올수록 긍정적 반응이 낮아졌다. 합리성에서 성적별로는 성적이 높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다섯째, 학생들의 참여에는 선거참여, 행사참여, 환경보호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학교행사는 비교적 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거참여에서 부정적 반응27.1%와 환경보호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22.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거참여, 행사참여와 환경보호에 여학생들이 비교적 더 긍정적인 것은 특이하다 하겠다. 선거참여와 환경보호에는 성적이 높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선거참여를 살펴보면 <구>서귀포시(M=3.64)가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고, <구>읍면지역(M=3.59)이 <구>제주시(M=3.21)보다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보호자학력별로는 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생들의 개방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관용과 타인종에 대한 이해, 타문화 존중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비교적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성적이 높을수록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살펴보면, 타인종에 대한 이해에 관해 거주지역별로는 <구>읍면지역(M=3.98), <구>서귀포시

(M=4.08), <구>제주시(M=4.23)로 올수록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타문화 존중에 관해서는 3학년(M=3.98)이 가장 높게 1,2학년은 긍정적 반응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적별로는 성적이 높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민주시민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명확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학생들 역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민주시민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서 제언을 해보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습득된 지식이 행동으로 연결되어 바람직한 민주시민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수업에서부터 토의식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사회전반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바람직한 방향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들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신에 대한 인식, 나아가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학생들이 열린 마음을 지닌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지역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에 있어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민주시민태도를 기르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여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책임성의 원리, 개방성의 원리가 적용되어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함께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의 중학생 727명이라는 한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연구 하였다. 이에 연구의 결과를 제주도 지역의 전체 학생의 태도로 일반화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민주시민태도의 측정변인으로 인간존중, 준법성, 자율성, 합리적 의사결정, 참여의식, 개방성의 6개 영역으로 민주시민태도의 모든 영역에 걸쳐 세부적으로 조사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중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민주시민태도에 대한 종합적인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영수(1995), 『민주시민론』, 법문사.
- 곽병선 외(1994), 『민주시민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1999), 『교육과정해설(I)』, 대한교과서.
- 듀이, J(1916), 이홍우 역(2007),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교육과학사.
- 심현섭 외(2004) 『한국민주시민교육론』, 엠에드.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1994), 『교육학 용어사전』, 하우.
- 이광자·엄신자·전신현 공저(2002), 『현대사회심리학』, 아세아문화사.
- 윤리교재편찬위원회편(1991), 『현대이념사조와 사상』, 삼광출판사.
- 전득주 외(1994), 『현대민주시민교육론』, 서울:평민사.
- 정세구(1985), 『한국정신 교육의 과제』, 서울:학문사.
- 차경수 (2003), 『현대의 사회과 교육』, 서울:학문사.
- Phil Erwin(2006), 『태도와 설득』, 시그마프레스.

<논문>

- 강경희(2002), “제주도 초등학생의 민주시민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강상범(1993), “사회과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방안”,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경희(2002), “현실요법을 적용한 자기통제 훈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율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창훈(2003), “제주도 중학생의 민주시민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항원(1999), “학교 생활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백록논총」, 제1집. 제주대학교.
- 류혜영(2007), “민주적인 경험이 시민성의 태도 및 실천영역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미우(1994), “민주시민의 태도 함양을 위한 중등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은중(2007), “세계화 시대에 바람직한 한국 민주시민교육 접근 방법 탐색”, 「인문

- 학연구」, 제34권 제1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변영남(2001), “중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민영(1998), “사회복지전공자들의 빈곤에 대한 태도: 태도수준과 영향요인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진형(2003), “중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해주(1997), “민주시민성과 사회교육의 관련성”, 「사회교육학연구」, 제2권 제12호. 한국평생교육학회.
- 오금주(2002), “중학교 사회교과교육과 민주시민의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미경(2006), “고등학생의 민주 시민 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명선(1997), “대화적 합리성과 교육”, 「사회교육과학연구」 제 2권.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학연구소.
- 추정훈(2002), “사회과 기능목표로서의 민주시민성”, 「사회과교육」 제 41권 제 4호. 한국사회과 교육연구학회.
- 황영희(2000), “중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Abstract>

A study of Democratic Civil Attitudes of Jeju Junior High School Students.

Yun, Na-Ryeon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 Kim, Hang-Won

The goal of the study which it sees investigates the democratic civil attitudes of the Jeju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nd it provides civil educates democratically the help which it starves and the fundamental data of democratic civil education and it is a thing.

The study which sees in order to examine democratic civil attitudes of the Jeju junior high school student from 20 classes of the Jeju undergarment junior high school 727 people sex, grade by and studies record by, 5 kind arms of protector educational background by they were dwelling areas by and in the object and with 6 kind of human respect, observance of the law, autonomy, the rational decision-making, participation and open in various branch virtue of democratic civil temperament and limited investigated. The result of investigation research with the contents which comes out to lower part it is same.

First, personal treatment of personal respect and the others, displaying the reaction where the student of the resultant most which it investigates is affirmative in about human rights, the human respect attitude is appearing relatively highly in about dignity of the human being.

Second, it presents an opinion about systematic outstandingly, public virtue

and order ceremony in about observance of the law and the reaction which is affirmative in the student of the resultant most which it examines it shows.

Third, in about autonomy presents an opinion in about responsible consciousness and example by leadership and responsible successful execution are displaying the reaction where the resultant students whom it examines are affirmative, the students of most are 'usual and' as relatively answer back there is a possibility it is not visible being, of knowing the clear forceful manner.

Fourth, with rational consuming and dialog it discusses in about the rational decision-making, principle of decision by majority to lead and the result which it examines, the reaction which the students is affirmative appears highly, but the students of most except the principle of decision by majority, are 'usual and' as answer back there is a possibility it is not visible and being of knowing the attitude which clear in the rational decision-making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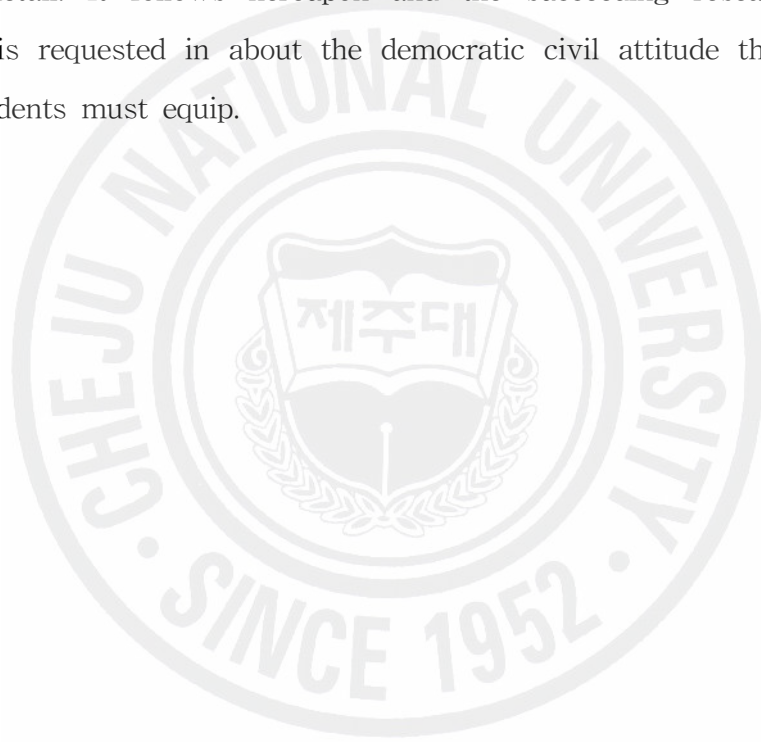
Fifth, participation of the students election participation, event particip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leads and the result which it examines, with the fact that it is participating relatively well, but that negative effect 27.1% it comes it does not participate to a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election participation, the student answer back to appear being high relatively with 22.1%, the possibility of knowing there was a school event.

Sixth, in order to examine open attitude of the students in about generosity and the other race presents an opinion in about gain and loss and other cultural respect the result which it examines, revealing the attitude where the students of most are affirmative, there is a possibility of knowing.

Like it tries to observe until now and it reveals the democratic civil attitude where the students of most are affirmative, it is not clear the students who reveal the attitude with as well relatively it is appearing many things.

The research which it sees was the junior high school student 727 bruise of the Jeju area and it investigated the students who are limited in the object. Result of this research generalizing in attitude of the whole student of the Jeju

area is a limit. Human respect, observance of the law, autonomy, the rational decision-making and participation it is conscious with the measurement arm person of democratic civil attitude. In 6 territories of open it extends in all territories of democratic civil attitude and it does not investigate it keeps a limit in detail. It follows hereupon and the succeeding research which is synthetic is requested in about the democratic civil attitude th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must equip.



제주도 중학생의 민주시민태도에 관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제주도 중학생의 민주시민태도 조사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각각의 응답에는 정답이 없으니 질문에 따라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답해주시는 내용은 본 연구의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료에서 얻어진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개별적으로 공개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이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질문에 응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전공

연구자 : 윤 나 련

* 다음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0등 선택해 주세요 *

번호	질문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친구의 성격이나 외모, 가정환경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2	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주는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나는 교복을 줄여 입거나 교칙에 어긋나는 외모를 하지 않는다.					
5	나는 도서관,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조용히 한다.					
6	나는 버스를 타거나 물건을 살 때 차례를 잘 지킨다.					
7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 수행한다.					
8	나는 청소시간이나 자율학습 시간에는 누군가의 지도가 없어도 스스로 한다.					
9	나는 계획된 일이나 과제 등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낸다.					
10	나는 물건을 살 때 충동적으로 사지 않고 가격이나 실용성 등을 생각하고 구입한다.					
11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주변 사람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한다.					
12	나는 학급회의에서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많은 사람이 결정하면 결정된 것에 따른다.					
13	나는 학생회장이나 반장선거 등의 선거에 꼭 참여한다.					
14	나는 학교 소풍이나 행사에 잘 참여한다.					
15	나는 환경을 위해서 물을 아껴쓰거나 재활용을 한다.					
16	나는 친구가 잘못을 했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용서한다.					
17	나는 나와 피부색이 다른 친구와도 친하게 지낼 수 있다.					
18	나는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의 문화도 존중한다.					

★ 뒷장으로 이어 집니다.★

19. 성별 : 남 () 여 ()

20. 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21. 성적 : 상 () 중 () 하 ()

22. 거주지역 : <구>제주시 () <구>서귀포시 () <구>읍·면지역 ()

23. 보호자 학력 : 중졸이하 () 고졸 () 대졸이상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